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의 영웅사관 재고(再考)

-1960년대 역사소설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 복 임*
(e-mail: danan01@hanmail.net)

目 次

1. 머리말
2. 사카모토 료마(坂本竜馬)의 즉물적 사고법
3. 히지카타 도시조(土方歳三)의 단호한 신조(信条)
4. 아키야마(秋山)형제의 창조적인 발상
5. 맺음말

1. 머리말

일본에서의 역사소설은 메이지기(明治期, 1868~1912)에 신문학의 한 장르로서 정착하여 모리 오가이(森鴎外;1862~1922)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竜之介;1892~1927)에 의해 발전을 거듭하였다. 이후 1960년대를 거쳐 70년대까지 역사상의 영웅 활약을 담은 소설이 붐을 일으키면서 각종 '일본의 역사' 시리즈가 출판되고 있을 무렵,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소재로 한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1923~96년, 이하 '시바'로 칭함)의 작품이 대중적 인기를 끌어 국민적 작가로 추대되었다. 특히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 했던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새로운 시각에서의 역사의 일면을 독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즉 아웃사이더(Outsider)인물을 중심으로 그들의 입장에 선 관료비판과 성공스

www.kci.go.kr

* 한남대학교 일문과 강사

토리, 리얼리즘에 입각한 합리주의 등을 표방하면서 역사를 자의적・주관적으로 해석하여 '시바사관'이라고 하는 역사관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듯 시바가 작품에서 서브리더(Sub-Leader)를 선택하고 있는 이유는 역사적 영웅에서 느낄 수 없는 일반적인 삶을 연출하여 대중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의가 되고 있다.[1] 그러나 한편에서는 시바의 영웅사관으로 회자되면서 일본적 내셔널리즘에 의한 역사관이라는 평가도 되어 있다.[2]

근대이후의 역사소설은 당시 시대상황과 연관되어 있고 정치성이 가미되기도 한다. 또한 작자의 행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역사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하고 있는 역사관이 투영되고 있는 것이다.[3] 그런 까닭에 1960년대에 활발하게 발표되었던 시바의 역사소설에는 일본의 고도성장기라고 할 수 있는 시대적 배경과 부합된 역사관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다. 즉 패전 이후 약 7년간의 점령기를 지나 1955년부터 시작된 성장의 시기에 과거역사에 비춘 미래의 방향성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신문이나 주간연재소설로 게재되었던 시바의 대중적인 문학작품에는 서브리더를 영웅으로 부각시키며 상징적인 일본인상이 제시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료마가 간다(竜馬がゆく, 이하 『료마』로 칭함)』(1963~66)와 『타올라라 검(燃えよ剣, 이하 『검』으로 칭함)』(1964), 『언덕위의 구름(坂の上の雲, 이하 『언덕』으로 칭함)』(1968~72)이라고 할 수 있다.

『료마』에서는 막말(幕末, 에도(江戸;1603~1868)말기)에 암살된 비극의 지사(志士)인 사카모토 료마(坂本竜馬;1836~67, 이하 '료마'로 칭함)를 일본 근대초기에 상사(商社)를 설립하고 근대정신을 선도한 인물로 묘사하며 영웅화시키고 있다. 또한 같은 시기에 발표된 『검』에서는 에도말기에 성행했던 신센구미(新選組)[4]의 국장(局長)인 곤도 이사미(近藤勇;1834~68)가 아니라 그 이면에

1) 武田昌憲(2010)「司馬遼太郎『坂の上の雲』-人間固定概念(かきがら)論」『茨城女子短期大学紀要』, 茨城女子短期大学 / 文芸春秋(2010.1)「司馬さんのさらなる「竜馬」像」『文芸春秋』, 文芸春秋 / 出久根達郎(2006.5)「『坂の上の雲』の全登場人物」『文芸春秋』, 文芸春秋 / 半藤一利(2004.3)「それからの『坂の上の雲』の英雄たち」『諸君』, 文芸春秋 他.

2) 신인섭(2010.9)「일본의 영웅서사와 역사소설-현대 일본소설에서 본 내셔널리즘과 '지식인 대중'」『일본어문학』, 한국일본어문학회. / 김용범(2010.2)「메이지제국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사람들」『한국논단』, (주)한국논단.

3) 大久保典夫 外(1972)『戦後文学論争 下巻』, 番町書房, p.430.

4) 신센구미(新選組)는 일본 에도 시대 말기인 1863년에 조직된 무사 조직이다. 원래는 교토로 가는 쇼군의 신변보호를 목적으로 조직되었으나 이후 교토의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활동을 하였으며 막부에 반대하는 세력과 싸웠다. 이후 막부 체제가 붕괴하자 막부군의 일원으로 정부군에 저항하는 무진전쟁(戊辰戦争,1868)에 참전하였다. 원래 에도에서 조직될 당시에는 '로시구미(浪士組)'라고 하였으나 이후 신센구미로 바꾸었다. 엄한 규율 유지를 위해 도입한 국중법도로 숙청을 하거나, '誠'이라는 한 글자로 만든 깃발, 소매 부분에 톱니모양의 무늬를 넣은 독특한 하오리(羽織, 옷 위에

서 활약했던 히지카타 도시조(土方歲三;1835~69, 이하 '도시조'로 칭함)를 유능한 실무가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청일・러일전쟁(1894・1904)을 배경으로 기술된『언덕』에서는 메이지기 군인이었던 아키야마형제(秋山好古(1859~1930)와 秋山真之(1868~1918), 이하 '요시후루', '사네유키'로 칭함)를 근대국가건설을 지향한 당시의 젊은 기개(気概)로 표현하며 상징적 인물로 세상에 알리고 있다.[5]

이러한 점에 착목하여 본고에서는 위의 작품을 텍스트로 하여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들의 특징적인 성격이나 자질 등을 살펴봄으로써 60년대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과 부합되어 표출되고 있는 시바사관(영웅사관)의 일면을 고찰한다. 이는 전후 일본 역사소설에서 형상화되고 있는 영웅의 이미지를 규명하는 동시에 영웅사관으로 일컬어지는 시바사관의 내셔널리즘을 재조명하려는 것이다.

2. 사카모토 료마(坂本竜馬)의 즉물적 사고법

시바소설의 특징이라고 하면 메이지기를 쇼와전기(昭和前期, 1926~45)의 어두운 일면과 대비시켜서 밝은 청춘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역사관의 출발점은 2차 대전 당시 전차병(戦車兵)으로 종군하며 1945년 국가의 붕괴를 체험했고 그로부터 마음의 평정을 상실한 눈으로 일본역사를 선악의 이원론으로 단순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논의가 되고 있다.[6] 시바는 일본을 파멸로 몰고 간 근원이 무엇일까? 하는 의문을 평생에 걸쳐서 해명하려고 했고 당시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했다. 그 첫 번째 대표작품이 1959년『올빼미의 성(梟の城)』으로 제42회 나오키상을 수상한 이후 본격적인 작가로 돌입하게 된『료마』라고 할 수 있다. 1962년부터 산케이신문(産経新聞)에 3년에 걸쳐 완성된 신문연재소설로 사카모토 료마를 주인공으로 하여 시대적 영웅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 작품이후 료마의 대중적인 인식이 점차적으로 바뀌어갔고 료마와 관련된 서적으로 발행된 단행본만 해도 100권을 상회하고 있다.[7] 료마는 시바의 작품에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고 메이지 공적을 논했을 때에도 그의 이름은 누락되어 있었다.[8] 하지만, 시바는 그를 시대의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영웅의 이미지를

입는 짧은 겉옷)복장으로 유명하다.

5) 小畑精和(2010.4)「庶民を描けないリアリスト」『情況』, 情況出版, p.72.

6) 保谷徹(2009.1)「歴史小説と幕末史」『歴史評論』 校倉書房, p.8.

7) 成田龍一(2003)『司馬遼太郎の幕末・明治』, 朝日新聞社. p.87.

형상화시키고 있다. 즉 합리주의자로서 일본초기 상사를 설립한 '경제인'으로, 또한 '대정봉환(大正奉還)'[9]을 추진한 평화적인 혁명자로 전환시켜서 현재의 료마상이 완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품에서 시바는 '료마의 행동이 하루 늦어지면 역사가 하루 늦어지는 사태로 되고 있었다(竜馬の行動が一日おくれれば一日歴史が遅れる、という事態になっていた)'(六, p.74)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듯이 료마라는 인물에게 가치관을 부여하며 영웅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가고 있다.

영웅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하여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시바의 작품에는 보통 사람이라도 영웅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겸비한다면 누구라도 영웅이 될 수 있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합리적 리얼리즘이고 두 번째가 확고한 신념, 세 번째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있지 않는 창의력 있는 발상이다. 이 세 가지의 요소를 시바는 60년대 연재소설의 형태로 서술되었던 대중적인 작품에서 역사적 영웅이 아닌 서브리더를 발탁하여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 리얼리즘에 충만한 실행정신은 아래와 같은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① "영웅이란 그러한 것이다. 설령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오히려 애교로 받아들여져서 더욱 인기가 오르는 사람이 영웅이라는 것이지. 료마에게는 그런 점이 있어. 그런 사람과 싸움하는 것은 하는 쪽이 바보짓으로 그르치지."
> "료마는 영웅입니까?"
> "그런 낌새가 있지" (중략)
> "영웅의 자질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서적 같은 것은 학자가 읽고, 때때로 그의 말을 듣고 옳다고 생각되면 그것을 큰 용맹심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 영웅이지. 어설픈 학문을 하려든다면 영웅은 멀어져가지."
> (一, 千葉道場, 89)[10]

> ② "학문도 중요하지만, 알고 있는 것을 실행하는 것이 남자의 길이다. 시도 재미있지만, 서재에서 시만 짓고 있는 것은 시시하다. 남자라면 자신의 인생을 한 편의 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木政成)는 한

8) 일본 'ウィキペディア フリー百科事典'에는 사카모토 료마에 대해 「시바 료타로의 소설『료마가 간다』의 주인공으로 묘사된 이후 지명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져서 막말의 풍운아로서 국민적 인기를 얻었다.」라고 소개되어 있다. 또한 마쓰모토 겐이치(松本健一)도 '료마는 유신3훈(維新三勲)에 들어가지 않았고 역사가들도 주목하지 않았던 인물이었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司馬遼太郎が発見した日本』, 朝日文庫, 2009年, p.13.)

9) 대정봉환(大政奉還)이란, 1867년 11월 9일에 에도막부 제15대 장군인 도쿠가와 요시노부(徳川慶喜)가 정권을 메이지천황(明治天皇)에게 반납하여 15일에 조정이 이를 윤허한 정치적 사건이다.

10) 司馬遼太郎(1998)『竜馬がゆく』(一)~(八), (株)文芸春秋. (이하 괄호 안에 권수, 소제목, 페이지 순으로 표시), 한국어번역은 논문작성자에 의함.

www.kci.go.kr

행의 시도 짓지 않았지만, 그의 인생 그자체가 비교할 수 없는 큰 시론이 아닌가?" (一, 二十歲, 214)

위의 문장에서 묘사되고 있는 영웅의 이미지는 프래그머티즘(pragmatism)에 의한 사고의 소유자를 뜻하고 있다. ①의 인용문은 당시 료마와 같은 도사번(土佐藩, 현재의 고치현(高知県))향사(郷士)인 다케치 한페이타(武市半平太;1829~65)의 말을 인용하여 영웅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즉 학문을 하는 것보다 배운 학문을 과감하게 실행하는 것이 진정한 영웅의 길이라는 묘사를 하고 있다. 다케치는 뛰어난 검술가로 에도말기에 존왕양이(尊王攘夷)에 입각한 도사근왕당(土佐勤王党)을 결성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앞장서려고 했다. 하지만, 과도한 급진적인 양이운동으로 인하여 막부로부터 죽임을 당한 인물이다. 이 대화문도 자신과 같이 확실한 판단이 서면 과감하게 행동하는 자질의 소유자가 영웅이라는 것으로 실행주의, 또는 즉물적(即物的) 사고자로서의 리얼리즘을 강조하고 있다.

②의 문장에서도 작자는 에도시대의 사상가이자 군학자였던 요시다 쇼인(吉田松蔭;1830~59)의 말을 인용하여 남자의 일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木政成;1294~1336)는 중세의 군키모노가타리(軍記物語)인 『태평기(太平記)』에서 묘사되고 있는 인물로서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 1336~92)의 충신으로 알려져 있다. 시바의 문학작품에는 일본의 대표적인 충신으로 구스노키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영웅의 상징으로 인용하며 그의 인생 자체가 한편의 시처럼 일본인에게 지금까지 커다란 울림을 주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11] 이처럼 시바는 다케치나 구스노키와 같이 과거 실존인물의 예를 통하여 실행정신을 하나의 영웅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대의 움직임을 중시하는 '시공간'적인 중심인물로서 '시운(時運)을 재빨리 통찰하고 그것을 움직이는 자야말로 영웅인 것이다.'[12]는 표현으로 료마를 부각시키고 있다. 작품에서 작자는 료마를 도사번의 하급무사였지만, 에도말기에 탈번(脱藩)하여 급변하는 정세를 간파하고 근대화에 앞장섰던 지사로 기술하고 있다. 실제로 그는 메이지유신(1868) 직전에 암살된 비극적인 인물로 유신의 공로자인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1828~77)나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1830~78)에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시바는 작품에서 천진난만한 성격으

11) 구스노키 마사시게는 천황에 대한 충성심의 상징적 존재이기도 하다. 그는 '황국사관(皇国史観)'아래 전사할 것을 각오하고 의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전쟁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군신의 거울', '일본인의 거울'이라는 칭송을 얻어 일본 수신교육에 발탁되기도 하였다.
(平泉澄(1973)『楠公・その忠烈と余香』, 鹿島出版会.)

12)「竜馬の論でいえば時運をいちはやく洞察してそれを動かす者こそ英雄だという。」(七, 清風亭, 132)

로 당시 홋카이도(北海道)의 개척을 주장하였고 일본초기 상사(商社)인 '해원대(海援隊)'를 설립한 선두주의자로 묘사하며 영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의도는 료마의 행동을 합리적 리얼리즘에 충만한 영웅의 모습으로 거듭 내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일본은 1854년 미국과의 불평등조약과 함께 밀려드는 서양물결에 막부가 흔들리고 있었다. 료마는 사태의 움직임을 직시하는 판단력을 갖고 근대화의 형성에 앞장서려고 했고 강인한 추진력으로 '대정봉환'이라는 정치적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일본역사는 커다란 변혁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료마의 선두적인 행동을 시바는 시대의 예견자로서 시공간적인 인물로 묘사하고자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자신이 직접 등장하는 필자의 화법으로 현실감에 충만하였던 료마의 행적을 신문기자와 저널리스트로 표현하며 리얼리즘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도 찾아볼 수 있다.

> ③ 필자는 이때의 료마의 역할을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당시 신문도 라디오도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물정에 상상 이상으로 어두웠지만, 료마의 그때 역할은 말하자면 신문기자와 같았다. (중략)
> 요컨대, 역사상 이름을 남겼던 지사라면 발로 취재하고 발로 전파한 여행가와 같았다고 할 수 있다. (二, 萩へ, 347)

> ④ "모든 일, 이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 라는 것이 가쓰(勝)와 료마의 행동방식이다. 현장을 보는 것으로 사태를 생각한다. 보지도 않은 것을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것은 아무리 논의가 그럴 듯해도 공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두 사람의 행동방식이었다. 그들은 뛰어난 저널리스트의 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좋았다. (五, 流灯, 193)

> ⑤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안심하지 않는 성질이다. 귀를 믿지 않고 눈으로 보고 그런 다음에 일을 생각하는 남자였다. 즉물적 사고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 이 점에서 료마의 사고법과 꼭 닮아있었다. 발을 사용하고 눈을 사용해서 직접 일에 부딪히지 않으면 일을 도모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 (四, 元治元年, 405)

시바소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작자의 등장으로 에세이적인 경향이 짙게 풍기고 있다는 점이다. 독특한 직접적인 화법으로 독자로 하여금 현장감과 신뢰감을 얻고 있다.[13] 이러한 방법은 후술하는 『언덕』과 『검』에서도 반복되고 있는데 후쿠이 유조(福井雄三)는 이런 문체에 대해 '시바의 본질은 위대한

13) 이복임(2009.5)「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의 독창적 역사기술방법 -『언덕위의 구름(坂の上の雲)』의 작자등장기법」『일본문화학보』, 한국일본문화학회 참조.

수필가이다'라고 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14]

위 ③의 문장에서도 당시 료마의 역할에 대해 필자로 등장하며 보충설명을 첨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발로 취재하며 전파하는 오늘날의 신문기자와 같이 매스컴의 발달이 없었던 시대에 현장으로 찾아다니며 사태의 변화를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있었다는 묘사를 하고 있다. 실제로 료마는 28세(1862년)에 탈번하여 에도(지금의 동경)를 비롯하여 전국을 돌아다니며 지사들과 만나서 격변하는 시대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때 에도말기에 세워졌던 군함조련소의 지휘를 맡고 있었던 가쓰 가이슈(勝海舟;1823~99)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근대화에 눈을 뜨게 되었다. 이 두 사람의 공통된 의식을 시바는 이어지는 ④와 ⑤의 문장에서와 같이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사태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사고의 소유자로 묘사하고 있다. 말하자면 전술한 신문기자와 같이 저널리스트의 면을 지니고 있었다는 뜻으로 리얼리스트로서의 료마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즉물적 사고법'이라고 하여 사물에 주관을 섞지 않고 실제의 사물에 비추어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표현으로 시바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료마의 성격을 함축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 료마라는 인물을 형상화시키고 있는 작자의 의도는 전술했듯이 당시 고도성장이라는 국가의 발전단계 속에서 '풍요로운 사회'로 향해갔던 시대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데 있어서 인간의 실행정신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바는 료마와 같은 지사를 통하여 비춰질 수 있는 행동양식을 상징화하여 향후 일본에서 요구되는 인간상으로 제시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고도경제성장의 그 뒷면에는 국권과 민권의 대립, 여공희생사, 소작쟁의 등 피해의식 속의 역사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은 뒤로하고 급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시대상황 속에서 일본인들이 지녀야할 필수적인 소양이 무엇인지를 과거 격변기의 주인공들을 통해 전달하고 있는 시바사관은 자신만의 목적의식이 투영되고 있는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시바는 당시 일본인들의 올바른 정신자세가 바로 합리적 리얼리즘이고 이것을 충실히 실행했던 료마의 리더쉽을 작품에서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리얼리즘에 관한 그의 주관은 메이지유신의 대표적 영웅인 사이고 다카모리와 그의 아웃사이더 존재였던 료마와 서로 비교하며 대조시킨 문장에서도 엿볼 수 있다.

> ⑥ 료마의 어록에는 '세상에 태어난 것은 일을 도모하는데 있다'라는 점에서 사이고와 일치하고 있지만, 바로 이어서 '남의 사적(事跡)을 흠모하여 남의 흉내를 내지 말라'는 것을 강조할 정도로 모험심이 강하다.

www.kci.go.kr

14) 福井雄三(2008)『司馬遼太郎の意外な歴史眼』, 主婦の友社, p.49.

> 또한 사생관에 있어서도 사이고와 비슷하지만, (중략)
> 료마에게는 아무래도 현실냄새가 짙게 풍긴다. (五, 変転, 272)

사이고 다카모리는 근대초기의 정치가로서 메이지유신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다. 작품에서도 막부시대를 종결시키고 천황 중심의 왕정복고를 성공시킨 절대적인 역할자로 묘사되고 있다. 그는 유신 후 정한론(征韓論, 1870년대를 전후하여 일본 정계에서 강력하게 대두된 한국에 대한 공략론) 주창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귀향하였고 중앙정부와 대립이 격화됨에 따라 서남전쟁(西南戦争, 1877)이 발생하였지만, 패배하여 자결하였다. 이 사이고와 료마는 당시 동일한 뜻을 품고 있었던 지사였지만, 사이고보다 좀 더 모험심이 강하고 현실적이었다는 료마의 행적을 부각하는 비교문장으로 확고한 작자의 주관을 밝히고 있다. 또한 작품에 삽입되고 있는 '방울벌레의 일화'(五, pp.273~278)를 통해서도 현실주의적인 료마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료마가 사이고와의 첫 번째 만남에서 그를 기다리는 동안 집안의 풀숲에서 작은 방울벌레를 잡아서 선물한다는 내용으로 짧은 시간이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어떤 사소한 일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료마의 가치관을 나타내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된다.

이 외에도 료마에게서 형상화되고 있는 영웅의 이미지는 다수 묘사되고 있으나, 위의 제시한 인용문에서만 보더라도 즉물적 사고법에 의한 실행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시바의 영웅사관을 살펴볼 수 있다. 즉 료마라는 인물의 영웅상은, 첫째 이론적인 것을 과감히 실행할 수 있는 용기, 둘째 현장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신문기자와 저널리스트와 같은 기질, 셋째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명확한 사고의 소유자이다. 더욱이 시대의 영웅이 아니라 서브리더를 선정하여 습득된 지식들을 과감하게 실행하며 체득해나가는 행적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작자는 료마를 향후 일본에서 요구되는 보편적인 인간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히지카타 도시조(土方歳三)의 단호한 신조(信条)

시바는 『료마』를 집필하는 도중에 1964년 『검』을 발표하고 있다. 1962년 11월부터 64년 3월까지 '주간문춘(週刊文春)'에 연재되었고 에도말기에 조직된 신센구미의 활동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센구미의 대표자는 곤도 이

www.kci.go.kr

사미로 알려져 있지만, 시바는 서브리더로 활약했던 히지카타 도시조를 주인공으로 하여 조직의 일원으로서 확고한 신념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도시조가 서남전쟁에서 패한 후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오능곽(五陵郭, 에도말기에 홋카이도 하코다테시(函館市)에 축조된 성곽)에서 장렬한 죽음을 맞을 때까지의 생애를 풍부한 인간성, 즉 일본의 전형적인 무사다운 면과 사상보다도 오히려 절의에 순직한 인물로 표현하고 있다. 동 시기의 『료마』와 표리(表裏)하여 『료마』는 신 정부파, 『검』은 구 막부파라는 시점에서 작자의 복안적, 조감적인 역사관이 내재되어 있는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가장 추구되고 있는 인간상은 자신의 본분, 즉 천성이라고 하는 데에 충실하였던 도시조만의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문장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① 전략과 같은 것을 천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도시조는 남모르는 자신감이 있었다. 이 천성을 쓰지 않고 일생을 보낸다면 도시조는 죽어도 죽을 수가 없다. (上, 分倍河原, 86)[15]

상대방과의 싸움에 있어서 전략은 승패가 가려지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위의 인용문에서 도시조는 전략을 자신의 천성이라고 믿고 오직 그 천성만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다는 묘사를 하고 있다. 그는 교토(京都)의 어느 농사꾼의 자식으로 태어나 검술도장에서 당시 뛰어난 검객인 곤도 이사미를 만나서 신센구미라는 에도말기 교토의 경비대를 결성하기에 이른다. 당시 무술실력이 출중한 로닌(浪人, 떠돌이 무사)을 모아서 편제한 조직으로 도시조는 막부에 정식으로 인정받는 결사대를 만들기 위해서 무사도에 맞는 법도를 정하고 법도를 어길시 강력한 규율로 다스렸다. 그는 항시 국장의 측근인 아웃사이더로서 교토의 치안경호유지를 위해 힘썼다. 또한 신센구미를 스케츠토메(助け努め), 감찰 등의 직무 별로 계통적인 조직으로 만들려고 노력했고 정점은 국장이지만, 실제의 지휘명령은 부장인 도시조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이 조직에 전념하여 결혼도 하지 않고 유신 후에는 정부군에 맞서서 죽을 때까지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위해 일생을 보낸 인물로 알려져 있다.[16]

흔희 난세에 영웅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시바는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결의대로 살아온 도시조의 정신자세를 영웅의 자질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작품에서 서술되고 있는 도시조의 인간성은 한층 더 강인한 의지를 표명하는 문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오직 신센

15) 司馬遼太郎(1972)『燃えよ剣』(上)(下), (株)新潮社.
16)「新選組百科事典」, http://www.toshizo.com

www.kci.go.kr

구미라는 조직을 위해 사명감을 지니고 있었다는 서술로 일관하고 있다.

> ② 도시조에게 있어서 허울뿐인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그의 정열은 신센구미를 세계최강의 조직으로 만드는 것만이 자신의 사상을 천하에 표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다. 무사에게 입과 혀는 필요하지 않는다.
> (上, 池田屋, 371)

> ③ 신센구미에게 사상은 독이다.
> 이러한 단호한 신조가 도시조에게 있다.
> 곤도는 단원의 임무보다도 정치와 사상에 열중하고 있었다.
> 이토(伊東)는 이토대로, 오하라 산미(大原三位)경 등 존양파인 공경의 저택에 드나들며 정세를 논하고 있다.
> 도시조만이 따돌림을 당한 것처럼, 단원의 임무에 몰두했다. 간부들 중에 그만이 조직 밖에 휴식처를 만들지 않고 조직 안에서 기거하며 버릇처럼 눈을 뒤룩거리며 빛내고 있었다. (上, 四条橋の雲, 506~507)

막말의 신센구미는 싸움결사대이다. 막부를 위해서 한 치의 잘못도 용납되지 않는 강력한 조직이었다. 후일에 평가는 양분되고 있지만[17], 조직에 입문한 이상 그 조직에 목숨을 바쳐야한다는 것이 시바가 의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영웅상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두 인용문에서 국장으로서의 곤도는 이론상의 명분만을 제시하고 본연의 임무보다는 어떤 사상이나 정치에 열중하고 있었지만, 이인자인 도시조는 오직 자신이 맡고 있는 일에만 충실하였다는 점을 대립적인 문장으로 강조하고 있다.

역사소설이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픽션을 가미한 문학의 한 형태로써 시바는 선호하는 주인공을 내세워 역사의 소재를 이용하면서 독자적인 인물상을 만들어가고 있고 이것이 그의 작품세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도시조의 실증적 사실에 비춘 성격형성과는 무관하게 작자의 의도대로 창착된 인물로 완성해가는 것이 『검』에서 말하고자 하는 시바의 영웅사관인 것이다. 실제적으로도 도시조는 어릴 때부터 고집스런 소년이었고 성장해서 신센구미라는 조직에 가담해서는 그 냉정함을 잃지 않고 막부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일에도 대원에게도 엄격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조직이 붕괴한 후에는 부모가 자

17) 신센구미가 결성된 당시에는 황국사관의 영향으로 조직을 부정하는 풍조가 강했다. 그 때문에 사학적인 연구도 미미했다. 다이쇼기(大正期, 1912~26)에 발표되었던 『구라마덴구(鞍馬天狗)』에서도 신센구미는 악역으로 묘사되고 있다. 하지만, 쇼와(昭和)3年(1928)에 시모자와 칸(子母沢寛)의 『신센구미시말기(新選組始末記)』에 의해 재평가되기 시작하여 1933년에 창설된 특별경비대(현, 경시청기동대)는 '쇼와의 신센구미'로 불릴 만큼 호의적으로 변했다. 2차대전 후에는 신센구미를 모티브로 한 만화나 게임, 페러디작품이 대거 등장함으로써 다양층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浅井清,佐藤勝 編(2004)『日本現代小説大事典』, 明治書院, p.532.)

식을 보살피듯이 끝까지 대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일화도 전해지고 있다.[18] 또한 전술과 같이 근대 역사소설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부합되어있기 때문에 에도말기라고 하는 격변기에 활동했던 도시조의 삶을 다음의 인용문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 ④ 도시조는 어디까지나 막부를 위해 싸울 작정이다. 쇼군이 정권을 반납하려고 하려건 말건, 히지카타 도시조가 알 바는 아니다. 도시조는 난세에 태어났고 난세에 죽는다. (남자의 본의가 아닌가?) (下, 大暗転, 97~98)

위에서 언급한 난세의 영웅이라는 말은 전술한 『료마』와 후술하는 『언덕』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19] 여기에서도 난세에 태어나서 살다간 도시조의 운명을 강조하고 있다. 즉 시바는 일본 에도말기의 혼란기 속에서 자신의 임무에 충실한 것으로 삶의 목표를 정할 수 있었던 도시조의 확고한 신념을 주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도시조와 같은 난세의 인물을 통하여 당시를 살고 있는 일본인에게 전달하려는 또 하나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작품에서 의도하고 있는 시바사관은 고도성장이라는 새로운 개척의 시기에 도시조와 같이 시대의 흐름에 동요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려는 횡적인 리더쉽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로부터의 종적인 명령체계가 아니라 자발적인 행동으로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나가는 마음자세가 창의적인 발상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시바는 바로 이런 점을 시사하고자 작품에서 도시조의 굳건한 신념을 반복 설명하며 각인시키고 있다.

> ⑤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해보지 않고서는 모른다. 나는 이미 승패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목숨이 있는 한 싸운다. 어쩌면 내 재미있는 생애가 겨우 막을 올리는 것과 같다." (下, 流山屯集, 311)

> ⑥ 도시조는 그 기묘한 사람 쪽인지도 몰랐다.
> 이 사내는 싸움이라는 것에 예술가와 비슷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 에노모토 다케아키, 오토리 게이스케 등은 이 전쟁에 대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세계관과 신념을 갖고 있었다. 어떻게 보아도 이들은 전쟁꾼이라기보다 정치가였다. 자신의 정치사상을 관철시키려고 전쟁을 일으켰다. 하지만, 도시조

18) 土方愛(2005)『子孫が語る土方歳三』, 新人物往来社.

19)「천품이 있었을 테지요. 사람 중에는 선인의 학문을 충실히 배우려고 하는 형과 그보다는 자득(自得)하고 싶다는 형,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료마님은 후자의 형인데 그와 같은 형은 '중국의 조조(曹操)와 같이 난세의 영웅에게 많다'고 오라버니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번 그 난세의 영웅을 만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竜馬(一), お田鶴さま, 45~46),
「전쟁이 영웅을 만들지만, 이 전쟁에 있어서 최대의 영웅은 러시아 흑해함대를 이끌었던 사령관장 나히모프일 것이다.」(坂(四), 水師営, 294).

는 그런 것이 없다.
　예술가가 예술 그것이 목표인 것처럼, 도시조는 싸움 그것이 목표로 싸움을 하고 있다. (下, 五稜郭, 519)

제시된 위의 인용문에서는 모두 도시조의 한결같은 신조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 그가 속해있는 신센구미라는 결사대가 막부를 지키기 위한 조직이니만큼 도시조는 이 조직의 목적을 위해서 삶을 이어간다는 내용과 함께 예술가와 군인을 비교하는 대조문장으로 작자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⑤의 내용은 유신 후 정부군과의 결전에 앞서 나눴던 곤도와 도시조의 대화문으로 이들은 이미 기능이 약해진 신센구미의 일원으로서 불안한 위치에 있었지만, 임무에 충실할 뿐 삶과 죽음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⑥에서도 당시의 지사들과 비교하는 대립문장으로 명확한 도시조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1836~1908)나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1833~1911)는 당시 도시조와 같은 일원이면서도 정치 쪽에 관심이 있었다는 묘사를 하고 있다.[20] 이들에 비하여 도시조의 삶은 예술가가 오직 예술을 위하여 인생을 소비하고 있듯이 오직 조직의 일원으로만 살아가려고 했다는 그의 확고한 신념을 재차 주지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시바가 주장하고 있는 영웅의 이미지는 『료마』에서의 즉물적 사고법에 의한 실행정신과 같이 『검』에서는 주인공만의 단호한 신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 조직의 일원으로써 전략을 자신의 천성이라고 믿고 확고한 의지로 관철시키려고 했던 도시조의 인생을 위에 제시한 인용문을 통하여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시바는 료마와 같이 학문적 사상이나 정치가의 논리가 아닌 실천을 바탕으로 하는 리얼리스트처럼 도시조를 굳건한 의지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갔던 인물로 형상화해서 60년대라고 하는 성장의 시기에 추구되는 리더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4. 아키야마(秋山)형제의 창조적인 발상

『료마』이후 출간된 『언덕』은 1968년부터 72년까지 약 5년간 산케이신문

20) 이들은 메이지유신 후 군인으로서 러일전쟁에 가담하여 공로자로 인정되어 후일 작위를 받고 정치가로 활동하였다. 시바는 그의 작품에서 이들과 같은 군부지도자를 폄하하고 있다.
(「近代における政権に近いひとびとの愛国心の歴史は、自分と国家と同一のものだと考える時代が明治期いっぱいでおわり、あとは、高級軍人たちが自分の官僚組織の単位と感覚でとらえるようになって愛国心としての実体をうしなった。」, 司馬遼太郎(1980)『歴史と視点』, 新潮文庫, p.63.)

에 연재되었던 작품이다. 근대 일본의 군인이었던 아키야마 형제와 문학자인 마사오카 시키(正岡子規;1867~1902)를 다원적인 축으로 하여 청일・러일전쟁을 배경으로 메이지기를 재조명하고 있다. 시바는 당시의 영웅으로 알려져 있는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1848~1934)나 노기 마레스케(乃木希典;1849~1912)보다 이들의 참모격인 아키야마 형제를 주인공으로 하여 탁월한 재능으로 도고나 노기를 빛나게 했던 서브리더로 묘사하고 있다.[21] 그 핵심적인 요소로 고정관념(固定概念)론을 전개하고 있는데 작품에서는 '고정관념'의 의미로서 '굴 껍질(かきがら)'론을 서술하고 있다. 즉 선박의 계속된 항해로 배 밑창에 달라붙는 굴 껍질을 그대로 방치해둔다면 다음 운행에서는 진행하지 못하고 제자리만을 맴돌게 된다는 논리이다.[22] 이는 현대인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관성(慣性)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 대해 다케다 마사노리(武田昌憲)는 시바의 일본인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하며, 일본 군부가 러일전쟁의 승리이후 고정적인 양식만을 규범으로 하고 새로운 발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평양전쟁(1939~45)에서 패배하게 되었던 것으로 시바는 생각했다고 하는 언급을 하고 있다.[23] 그러나 아키야마 형제와 마사오카 시키는 고정관념에 구속되지 않는 합리성에 의한 자유로운 발상, 실행력이 충만한 인물로 묘사하며 창의적인 인간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실행력은 앞서 『료마』에서 추구되고 있는 합리적 리얼리즘과 동일한 개념으로 영웅사관의 기본적 테마이기도 하다. 특히 『언덕』에서는 이와 함께 아키야마 형제의 자유로운 발상에 의한 창의력이나 독창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들의 천재성을 내세우는 장면이 부각되고 있다.

---

21) 도고 헤이하치로는 일본 메이지기의 해군 제독으로 청일전쟁 때 함장으로 청국군함을 격침시켰고 러일전쟁 때는 일본 연합함대사령장관으로 동해해전에서 러시아의 발틱함대를 격파했다. 노기 마레스케는 러일전쟁 시 일본육군에서 대장으로 활약하였고 전쟁 이후는 황족과 귀족의 교육기관에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당시 일본군 최고 지도자로서 도고 헤이하치로와 함께 '해군의 도고, 육군의 노기'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22) 「'예를 들면, 군함이라는 것은 한번 원양항해에 나갔다 돌아오면 배 밑창에 굴 껍질이 잔뜩 달라붙어서 배 속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인간도 마찬가지여서 경험은 필요하지만, 경험에 의해 늘어나는 지혜와 같은 분량만큼의 굴 껍질이 머리에 달라붙게 되지.' (중략)
'굴 껍질은 인사(人事)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작전실에서 군정에 흥미를 갖고 있지 않고 인사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는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작전이야. 작전의 기본이 되는 해군군인이 당신이잖아.' (중략)
'해군이라고 하는, 함대라고 하는, 작전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붙어져 있다. 두려운 것은 고정관념, 그것이 아니고 고정관념이 붙어져 있는 것도 모른 채 태연하게 사령실이나 함장실의 푹신한 의자에 파묻혀 있다는 것이지' (중략)
미숙한 자들은 지혜가 얕은 대신에 고정관념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일은 서슴지 않고 채택해서 실행한다.」 (『坂の上の雲』(二), pp.141~142.)

23) 武田昌憲(2010), 앞의 논문, p.17.

http://www.kci.go.kr

① 사네유키의 성격과 두뇌는 지나치게 창조력이어서, 기정사실을 일일이 기억하는데는 적합하지 않았다. “아키야마 사네유키가 천재적 작전가로서의 길을 걸어갔던 것은 그가 병학교를 나오고 강제적인 교육에서 해방되고 나서부터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一, 軍艦, 292)[24]

② 사네유키는 전략전술의 천재라고 말해졌다. (중략)
우선 사네유키의 특징은 그 발상법에 있는 것 같다. 그 발상법은 사물의 요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한다. 요점의 발견법은 과거 모든 유형을 본다거나 듣는다거나 조사하는 것이었다. (二, 渡米, 59~60)

③ 이 초계(哨戒)계획은 예전에 아키야마 사네유키가 입안하고 가토 토모사부로(加藤友三郎) 참모장을 거쳐 도고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일본해군이 낳은 독창적인 영예를 차지한 것이리라. (六, 艦影, 132)

위 문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아키야마 사네유키는 ‘일본기병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요시후루의 동생으로 1868년 메이지유신이라는 격동기 속에서 태어났다. 당시 신설된 해군병학교(海軍兵学校)에 입교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수재로 후에 해군장교가 되어 러일전쟁에서 크게 활약하는 모습이 작품에서 리얼하게 묘사되고 있다. 시바는 사네유키의 자질로 창조적인 발상법을 들고 있다. 위의 인용문을 보면 획일적인 교육에는 맞지 않는 자유로운 발상의 소유자로 사물의 요점을 파악하는 그의 합리적인 발견법은 과거의 유형에서 모색하고자 하는 방식에서 비롯되었다는 서술로 보다 객관적인 방법으로 일관했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전술한 료마의 영웅상과 연관된 것으로 작자가 의도하고 있는 인물상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①의 인용문에서는 같은 해군병학교 출신자의 말을 인용하여 사네유키의 행적을 서술하고 있다. 그의 학습방법에 있어서 핵심과 특징을 잘 파악하는 요점파악술이 획일적으로 진행되는 학교공부에는 적합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특수한 두뇌를 가진 인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주변의 이야기에도 항상 귀를 기울여서 조그만 단서라도 있으면 바로 유추하여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로도 묘사하며 사태파악에 민첩했던 인물로 주지하고 있다.[25]

②에서는 작자가 사네유키에 대해서 사전 조사한 내용들을 서술한 것으로써 그의 천재성은 과거의 온갖 형태를 보고 듣고 조사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상력을 가미하여 창조하는 데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주장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즉물적 사고법’에 의한 행동양식으로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 방식에 의한 사고

24) 司馬遼太郎(2005)『坂の上の雲』(一)~(六), (株)文芸春秋.
25)「터무니없는 허풍을 열심히 듣고 나서는 곧장 그 자리에서 그것을 이론적인 줄거리를 통하여 대작전을 책상 위에서 연출해 보인 일도 있었다.」(三, 黄塵, 217)

www.kci.go.kr

처리법을 의미하고 있다. 이는 사네유키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창조력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할 수 있다.

③의 초계(哨戒)계획이란 적의 습격에 엄중히 감시하고 경계한다는 전략으로 적군의 습격에 대처하는 방안이다. 이것을 사네유키가 입안하였던 것으로 당시에는 독창적인 전법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실제로 사네유키의 행적은 러일전쟁 시 러시아와의 해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丁자 전법'[26]이라든가 해군본부에 타전한 탁월한 내용의 문장기술 등은 지금까지 높게 평가되고 있다.[27]

이렇듯 시바는 타성에 사로잡혀있지 않는 자유로운 발상과 실행력을 고정관념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제시함으로써 사네유키라는 인물을 극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요시후루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방법으로 당시의 난관을 타개하고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였던 일화들이 서술되고 있다.

> ④ 요시후루가 취하고 있는 전법은 '거점식 진지'라는 특수한 것이었다.
> 기병 본래의 특질에서 본다면 급습과 기습 또는 정진이라는 기동전법을 취해야하지만, 그가 총사령부에서 명령받고 있는 임무는 전군의 좌익을 경계하고 방위하는 이른바 비기병적 임무였다. (중략)
> 요시후루는 자기군대의 약점을 꿰뚫고 있었다.
> "전쟁은 이길 수 있는 궁리가 필요하다."
> 라는 것이 그의 말하자면 비통한 거점방어주의였다.
>
> (四, 黒溝台, 442,477~478)

> ⑤ 요시후루는 지금까지 늘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기기보다도 지지 않는 방법을 골랐다. (중략)
> 요시후루는 전승자였다. 하지만, 추격하지 않고 거꾸로 퇴각했다. 이런 경우 호흡과 전투지휘의 융통성은 거의 명인이라 해도 좋았다. (五, 会戦, 330,334)

---

26) 「丁자 전법」이란 임진왜란 시 이순신제독이 1592년 7월 8일, 한산도 앞바다에서 일본수군의 맹장(猛将)인 와키자카 야쓰하루(脇坂安治;1554-1626)와 구키 요시타카(九鬼嘉隆;1542-1600)의 함대를 맞아 싸워 대승했던 학익진법(鶴翼陳法)으로 이것을 사네유키가 모방하여 만든 전법이다. 시바는 이 문장에서 사네유키에 의해서 고안되었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의 수필집『메이지라는 국가(明治という国家)』(下, p.66)를 보면 러일전쟁 당시 일본해군의 사관들은 이순신의 전법에 대해서 배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언덕』(六, p.242)에서도 '일본인에게 그(이순신)에 대한 존경심이 계승되어 메이지 시대에 해군이 창설되자 그 업적과 전술이 연구되었다.(日本人の側に彼への尊敬心が継承され、明治期に海軍が創設されると、その業績と戦術が研究された。)'고 서술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사네유키가 고안했다고 하는 '丁자 전법'은 이순신의 전법을 응용하여 실전에서 사용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27) 사네유키는 러일전쟁 시 러시아 발틱함대와의 해전에서 그가 고안한 '丁자 전법'으로 큰 성과를 올렸고 탁월한 문장가로도 알려져 있다.
(中村彰彦(1996.12)「日本海海戦の名作戦家秋山真之」『PRESIDENT』, pp.93~94)

www.kci.go.kr

아키야마 요시후루는 일본의 근대식 기병을 육성하여 확립시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시바는 작품에서 그를 오직 기병의 육성을 인생의 목표로 하는 '단순 목적주의'의 전략가로 묘사하며 러일전쟁 시 러시아의 카자크(Kazak)기병을 격파한 영웅으로 부각시키고 있다.[28] 위에 제시한 인용문은 일본군부의 고정관념과는 상반된 발상의 '거점식 진지'라든가 '퇴각'의 새로운 방안으로 당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 전략에 있어서 자신의 처지를 직시하고 대처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중요한 발상이다. 기병의 특징은 급습과 기습, 또는 정진이라는 기동전술이지만, 요시후루는 상식(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방식을 채택하였고 또한 추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거꾸로 퇴각하는 전투지휘의 융통성으로 '명인(名人)'으로 묘사되고 있다. 시바는 이 두 형제에 대해서 자주 '명인'이라는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기예(技芸)에 뛰어난 사람. 또는 그 분야에서 평판이 높은 사람'을 뜻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사용하며 해군이나 육군에서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가장 평판이 높은 인물로 형상화시키고 있다.

특히 시바는 요시후루보다 사네유키를 '신비적인 명참모'라던가 '희대의 명참모', 또는 '천재적인 설계자'로 표현하며 영민한 인물로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는 러일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을 사네유키에게서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29] 문헌에 의하면 사네유키는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았다고 한다. 한 가지 예를 들어 그의 관력(官歷)을 보면 '학술우등에 포상으로 영화사전(英和字彙)1권 연필 1자루를 수여, 학술우등에 포상으로 단검 1자루를 수여, 학술우등에 포상으로 우등상장을 수여함'이란 기록이 있으므로 총명한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30] 이렇듯 명석한 두뇌로 러일전쟁에서 탁월한 전략가이자 도고 헤이하치로의 명참모로 활약하였던 사네유키의 모습을 신비, 희대(稀代), 천재의 수식어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의 존재감을 확대시키기 위해서이다. 즉 당시의 해전에서 러시아와의 승패가 일본의 운명을 결정지울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였고 여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인물이 사네유키였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의도에서 발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8)「요시후루는 자신의 인생을 간단명료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했다.
"내 일생의 주된 목표는 하나다" 이렇게 항상 말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라는 것은 기병의 육성이라는 일이었다.」 (二, 列強, 202)

29)「사네유키는 후일까지 일본해군의 신비적인 명참모로 알려졌다. 」(六, 抜錨, 227), 「희대의 명참모로 알려졌던 사네유키라도」(六, 運命の海, 298), 「사네유키는 확실히 천재적인 설계자였을 것이다.」(六, 死闘, 344~5)

30)「秋山真之会発行、桜井真清著『秋山真之』所収のその『官歴』を見ると、明治二十年から二十二年にかけての三年間、それぞれの七月すなわち当時の年度末のこととして、「学術優等ニ付キ英和字彙一冊繰出鉛筆一本授与ス」「学術優等ニ付キ短剣一腰授与ス」「学術優等ニ付キ優等章ヲ授与ス」という文章がならんでいる。」 (中村彰彦(1996.12), 앞의 논문, p.90.)

이와 같이 아키야마형제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합리적인 발상이나 독창적인 전술로 자신들의 임무에 충실하려고 했던 능력과 자질 등을 서술하고 있는 작자의 의도는 자기계발의 추구라고 여겨진다. 즉 러일전쟁 시에 제안했던 '초계계획'이라던가 '거점식 진지', 또는 '전투지휘의 융통성' 등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들의 활약을 부각시켜서 개개인의 능력계발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합리적이고 창조적인 발상법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요구되는 인간의 자질이지만, 특히 패전을 딛고 고도성장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인간상으로 이들의 리더쉽을 당시의 일본인들에게 재인식시키려는 목적의식이 내재된 시바사관이라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역사적 영웅에는 권력자(治者)의 영웅과 민중의 영웅이 있다. 민중은 권력자에 억눌려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만들어내는 영웅은 주로 파멸형이나 방랑형의 영웅이 많다고 일컬어진다. 이런 민중들이 집단적 창조력을 발휘하여 영웅을 만들어내는 시점이 역사에서는 격동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바는 난세에 살다간 유명, 또는 무명한 실존인물을 모델로 하여 이들의 삶을 소설화하고 있다. 특히 본고의 텍스트로 하고 있는 작품의 주인공과 같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아닌 서브리더(이인자)를 주인공으로 하여 형상화시키고 있는 시바의 역사관은 주관적 영웅사관으로 회자되고 있다.

시바는 2차 대전이라는 전쟁을 경험한 역사소설가로 그의 작품에는 '패전'에 대한 강한 분노가 축적되어 있다. 때문에 일본근대의 메이지기와 쇼와기(昭和期)를 리얼리즘의 시대(현실)와 이데올로기의 시대(사상)로 표현하는 역사관이 형성되어 있기도 하다.[31] 이 리얼리즘이 시바가 추구하고 있는 핵심사상으로써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각 작품의 주인공을 통해서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료마』에서는 이론적인 것을 과감히 실행할 수 있는 용기와 신문기자나 저널리스트와 같은 기질,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의한 명확한 사고의 소유자를 영웅화하고 있다. 『검』에서의 영웅상은 학문적 사상이나 정치가의 논리가 아닌 실천을 바탕으로 하는 굳건한 의지로 일관할 수 있었던 신념의 소유자이다. 마지막으로 『언덕』에서는 고정관념에 사로잡

31)「明治は、リアリズムの時代でした。(中略) 昭和には一昭和二十年までですが一リアリズムがなかったのです。左右のイデオロギーが充満して国家や社会をふりまわしていた時代でした。」
(司馬遼太郎(1994)『明治という国家』(上), 日本放送出版協会, pp.7-8.)

www.kci.go.kr

히지 않는 자유로운 발상, 또는 합리적이고 창조적인 전술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저력 등을 강조함으로써 각자의 위치에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인물을 영웅으로 하고 있다. 특히 1960년대라는 시기에 이러한 작품들이 집중 발표되고 있는데,[32] 이는 1945년 패전과 더불어 7년간의 점령기간을 거쳐 1955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고도경제 성장이라는 시대에 모색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적 소양을 서브리더의 삶을 통하여 일깨워주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한다. 즉 격동기라고 하는 시대에서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으로 삶을 일관할 수 있었던 실존인물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합리적 리얼리즘에 충만한 특징적인 성격들을 발췌하여 역사의 영웅으로 부각시키며 이들의 리더쉽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중적인 연재소설로 전파된 이러한 시바사관은 일반인들에게 충분히 공감되었기 때문에 국민작가로 정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특정한 인물을 영웅화하고 있는 시바사관이 자기중심적인 인물사관으로 또는 일본적 내셔널리즘의 경향이 강한 역사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역사적인 영웅이 아니라 이들의 아웃사이더를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보편적인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는 시바의 영웅사관은 단순한 히어로 찬양이 아니라 고도성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일본인상으로 표명하고 싶은 목적의식이 투영된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다.

32) 1960년대에 발표된 시바의 장·단편 역사소설은 총 60여 편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변혁기 지사들의 영웅상을 그린 작품은 32여 편이라고 할 수 있다.

www.kci.go.kr

【参考文献】

松本健一(2009)『司馬遼太郎が発見した日本』, 朝日文庫, 2009年, p.13.
福井雄三(2008)『司馬遼太郎の意外な歴史眼』, 主婦の友社, p.49.
土方愛(2005)『子孫が語る土方歳三』, 新人物往来社.
司馬遼太郎(2005)『坂の上の雲』(一)~(六), (株)文芸春秋.
_____(1998)『竜馬がゆく』(一)~(八), (株)文芸春秋.
_____(1994)『明治という国家』(上), 日本放送出版協会, pp.7-8.
_____(1980)『歴史と視点』, 新潮文庫, p.63.
_____(1972)『燃えよ剣』(上)(下), (株)新潮社.
浅井清,佐藤勝 編(2004)『日本現代小説大事典』, 明治書院, p.532.
成田龍一(2003)『司馬遼太郎の幕末・明治』, 朝日新聞社. p.87.
平泉澄(1973)『楠公・その忠烈と余香』, 鹿島出版会.
大久保典夫 外(1972)『戦後文学論争　下巻』, 番町書房, p.430.
신인섭(2010.9)「일본의 영웅서사와 역사소설」『일본어문학』, 한국일본어문학회.
김용범(2010.2)「메이지제국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사람들」『한국논단』, (주)한국논단.
武田昌憲(2010)「司馬遼太郎『坂の上の雲』」『茨城女子短期大学紀要』, 茨城女子短期大学.
小畑精和(2010.4)「庶民を描けないリアリスト」『情況』, 情況出版, p.72.
文芸春秋(2010.1)「司馬さんのさらなる「竜馬」像」『文芸春秋』, 文芸春秋.
保谷徹(2009.1)「歴史小説と幕末史」『歴史評論』. 校倉書房, p.8.
出久根達郎(2006.5)「『坂の上の雲』の全登場人物」『文芸春秋』, 文芸春秋.
半藤一利(2004.3)「それからの『坂の上の雲』の英雄たち」『諸君』, 文芸春秋 他.
中村彰彦(1996.12)「日本海海戦の名作戦家秋山真之」『PRESIDENT』, pp.90, 93~94.

www.kci.go.kr

要 旨

本稿は、日本の1960年代に発表された司馬遼太郎の代表的な歴史小説のなかで『竜馬がゆき』『燃えよ剣』『坂の上の雲』をテキストにして、作品に描かれている主人公らの特徴的な性格を中心で司馬の「英雄史観」を考察したものである。司馬の文学作品ではほとんど日本近代の明治期をリアリズムの時代に、昭和期をイデオロギーの時代に表現する歴史観が形成されている。その中で合理的なリアリズムが司馬史観の中核的な思想として司馬は作品の人物を通じて具体化していると思われる。すなわち、『竜馬』では即物的な思考法の所有者として理論的なことを実行することができる勇気と新聞記者やジャーナリストのような性格の人物を英雄化している。『剣』で表明している英雄像は学問的な思想や政治家の論理ではなく、自分だけの断乎たる意志に進むことができる信念を持っている人物である。なお、『坂』では慣性による固定概念そのものではなくて自らの創造的な発想法が作り上げられる能力の人物を英雄にしている。彼らの発想法は過去のあらゆる型を見たり聞いたり調べたりする方法で物事の要点を考えて啓発できる能力の所有者を意味する。さらに、このような作品の主人公らは歴史的に有名な人々のアウトサイダーの役割をしていた人物をヒーローにしているために普遍的な人間像を表している人物史観で評価されている。その一方、司馬の主観的でありながら独自な英雄史観として日本的なナショナリズムという議論もなされてきた。しかし、1960年代の歴史小説で主人公の特徴的な性格を形像化している司馬史観は日本の高度経済成長という改革期に必要とされる人間の資質に表そうとする目的意識が内在された歴史観だといえる。

キーワード：英雄史観　合理的なリアリズム　即物的な思考法　断乎たる信念
創造力　発想法

투　　고：2012.
1차 심사：2012.
2차 심사：2012.

www.kci.go.kr